



마스크 협동조합, 농아인협회 전주지회에 기부

마스크 협동조합(우현규 회장) 소속 마스크 생산업체인 제이에스테크(황석진 대표), 성실(정태우 대표), 유니레즈(이호성 대표), 휴먼텍(우현규 대표)에서 9일 전북도농아인협회 전주지회(전주시수어통역센터, 이현석 회장)에 KF-94와 멘탈 마스크 7만8,000장(시가 1,700여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기증된 마스크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 내 농아인협회 소속 정회원과 전주시 장애인단체 소속 정회원, 그리고 기타 기관에 나눠줄 계획이다.

성실의 정태우 대표는 “나눔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참으로 뜻깊고 앞으로도 농인 분들을 더 행기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승 전임 지회장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석 신임 지회장은 “이렇게 좋은 일을 전주에서 시작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며 수进而 전했다.

최현숙 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소통이 어려운 농인 분과 장애인들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김상표 전북도농아인협회장과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자리에 빛내 줬다. /유호상 기자

“동문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북대언론인상… 위병기·이창익·동문·영예·공로상… 김경섭·김종환 국장

전북대언론인회(회장 박재홍)가 정론직필을 실천해 온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2021년 전북대언론인상에 위병기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이창익 전주MBC 사업국장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공로상 수상자로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전주KBS 보도국장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대는 9일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백제홍 전북대언론인회장과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언론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오랜 시간 언론에 몸담으며 정론직필을 실천하고 전북대 동문 언론인으로서 ‘자유’와 ‘정의’, ‘창조’라는 모교의 정신을 기습에 새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위병기 편집국장은 30년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며 지역사회와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본부 정치부



장재희 당시엔 전북 항우들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지역과 도교 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이창익 전주MBC 국장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취재부장을 지내며 기획취재를 활성화 시켜 지역 문제들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2018년부터는 전북기자협회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무대에서 전북과 지역 언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공로상 수상자인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전주KBS 보도국장은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 촉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론직필 실현과 도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동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동문 언론인 여러분이 국가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라이온스 356-c 전북지구 등, 도시락 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 전주 1, 2지역연합회(총재 박병익)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소외계층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추진한다.

이번 봉사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1지역의 이용선 부총재와 2지역 이석재 부총재를 중심으로 22개 클럽 회장들이 우족단과 반찬, 마스크 구리미세트를 정성스럽게 마련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 고창지부, 설 명절 사랑의 쌀 전달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고창군 관내 다동이 쿠촌인의 집을 찾아 고창쌀 20kg 10포대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홍덕면에 거주하는 박경호(60)씨는 2011년 고창으로 귀촌하여 이제는 장성하여 경찰에 취직한 첫째 아들과 고창으로 귀촌하여 태아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막내 딸을 포함하여 모두 3남 7녀의 열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고창군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농촌지역의 빙집을 수리하여 무상으로 10년간 임대해 주어 대신면에 이어 홍덕면에 터전을 자리잡게 됐고 오늘과 같이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자녀교육과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의 전통, 1,900년 레이놀즈 선교사가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기르고자 했던 섭김과 사랑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리는 격려이자 채찍이라 여기겠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양질의 수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신흥고, ‘양영옥 교직원후원회’ 결성… 5천만원 후원금 기증

전주신흥고등학교(교장 임희종)에 ‘양영옥(본교 7대 교장) 교직원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 2월 4일 양영옥 교장의 자제이자 본교 졸업생인 양갑수 동문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5천만원을 후원하겠다며 후원금 기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갑수 동문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절실했던 것은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교사를 모셔와 좋은 학교를 만든 아버지 양영옥 교장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신흥고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0억의 희현장학회 장학금과, 기초과학 부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그 분야 대학진학 학생을 후원하는 1억의 박상모 장학금에 이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을 후원하는 5천만원의 교직원후원회까지 만들어진 학교가 됐다.

임희종 교장은 “1,700년 호남의 인재를 길러냈던 희현당



이어,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리산 뱃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시작

남원시는 지난 1월 말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라인 작업을 통해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지리산 뱃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뱃사골 고로쇠는 우수(雨水)를 전후해 해발 600m 이상인 뱃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이상의 고로쇠나무 7만여 그루에 터전을 차지하며, 특히 지리산 뱃사골 고로쇠는 해篷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과 고지대에서 채취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높아 전국 최고 품질로 각광받고 있다.

고로쇠는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으로 골리수(骨利水)로도 불리며, 이뇨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뱃사골 인근에서는 200여 농가가 고로쇠 채취로 20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다.

2021년부터 남원고로쇠는 뱃사골 고로쇠, 남원 고로쇠, 춘향을 고로쇠 법인 단체를(윤봉, 인월, 이영, 산내, 주전) 하나로 통합해 ‘지리산남원 뱃사골 고로쇠 영농조합’ 법인(대표 정기주)으로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자봉센터, 시·군센터와 설 맞이 코로나19 특별방역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가 각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신축년 설맞이 코로나19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방역활동은 타미널과 전통시장 등 도내 다중 이용시설 및 방역 취약지역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여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마스크 제작·배부, 방역 취약계층 지원, 농촌일손돕기 등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 자체 자원봉사 흥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강화 등 방역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신축년 한 해도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군센터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설맞이 환경정비 실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9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기재미8길 일대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랑길공원에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쓰레기 치우는 등 시민들이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 그간 꾸준히 제기 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청소와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재분류 작업도 병행 실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중부교회,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기부

전주중부교회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전주시 완산구 종양동주민센터(동장 최훈석)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박종숙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살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중부교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중부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독거노인과 의료기관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봉센터, 전주역·버스터미널서 방역봉사

전주시가 시민과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시설에서 방역봉사를 실시했다. 시민·법인 전주자봉센터(이사장 황의록)는 9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센터는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손잡이와 대기실 의자 등을 헌대용 소독 분무기를 활용해 방역 수건으로 닦는 작업을 펼쳤다. 센터는 또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설 연휴 차지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독려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5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시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금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02-274-9417
효자지사
010-8645-9935

중양지사 010-90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신지사 68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완주지사 246-6855
남원지사 632-095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만금청장, ‘공직자 착한 선물 나눔’ 동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설을 맞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공직자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고자 9일 오후 상설시장을 찾았다.

‘공직자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농어민을 돋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캠페인이다.

양 청장은 과일, 건어물, 떡 등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생필품(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구매해 지역 내(군산, 김제, 부안) 복지시설과 요양원에 전달했다.

양 청장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을 나누고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꾸준한 관심과 나눔 활동으로 지역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